

† 찬미예수님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흥보 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도 하늘에 올라 영광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2017년 5월 28일 주님 승천 대축일 (흥보 주일·청소년 주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8,16-20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주임신부 이야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 하순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정말 무섭게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엿그제 성모의 밤을 한 것 같은데 5월도 마지막 날까지 한 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상념에 젖다보면 매일 하루 하루가 그리고 일초가 소중한다는 절실함을 넘어 절박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지금 이 순간 제일 먼저 후회없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J. 하비스는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라고 했고, 체게바라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꿈꾸어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명언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찌보면 시간관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내세(하늘 나라)를 갈망하며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주어지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에 관한 지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단순히 신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축복을 청하는 행위 또는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곧 삶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와 비전을 제시해줍니다.

청춘은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일생에 한번밖에 오지 않는 행운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기를 신앙의 진리 안에서 지혜를 얻어 멋지게 살아가기를 진심 바랍니다.

=====

2017년 5월 넷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하모니/뜨락 청년회 야유회 및 하모니 입회 환영식 (5/20)

하모니/뜨락 분기별 공동행사인 야유회와 하모니 입회 환영식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공동행사를 위해 여러가지 준비에 수고해주신 하모니/뜨락 회장단께 고마움을 전하며, 특별히 차량을 제공해주신 장 익(가밀로)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날 하모니의 새로운 멤버가 되신, 박수지(세실리아),이은진(마크라),박수현(프란치스코) 그리고 기존의 하모니 멤버지만 뜨락회에서 하모니로 입회한 세 멤버들과 동갑인 안영은 (마르따) 자매님 포함하여 다시 한번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임 신부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주임 신부님의 격려금 \$100도 감사히 회비에 보태어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보나눔 봉사(5/21)

수고해 주신 최보나 가브리엘라 그리고 금채은 소피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야외미사 걷기행사 홍보/후원금 접수 봉사 (5/21)

주일 미사 전, 후 친교실에서 홍보와 후원금 접수에 봉사해주신 장익(가밀로), 전진영(베로니카), 류은정(골롬바), 안영은(마르따) 그리고 트락회 전영진(알베르뜨)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케이블 파이프 공사 도우미 (5/21)

지난 주일(5/21) CCTV 케이블 파이프 공사에 도움을 주신 장익 가밀로, 권창모 미카엘, 김정호 이나시오 형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별 아래서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하모니/트락회 감사헌금 봉헌(5/21)

지난 부활 바자회 수익금(\$110)으로 감사헌금을 봉헌 하였습니다.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5/25 목)

매달 네번째 목요일 오후 4시에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5/25 목 오후 4시 (시작)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걷기행사 준비 작업 (5/28 주일)

다가오는 걷기행사 (6/4)에 필요한 선물, 풋말, 사진틀 등을 만드는 작업에 하모니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봉사를 요합니다~ 필요한 여러 물품을 재미있게 만들며 걷기행사를 모두 함께 정성스레 준비해보요~ **점심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5/26 금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5/28 주일 오후 12시 30분 (점심 제공)

장소: 트락회 회합실 (교육관 201호실)

작업 후 성가연습, 그리고 영어미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야외미사 걷기행사 홍보/후원금 접수 봉사 (5/28 주일)

하모니와 트락회를 위한 기금마련 걷기행사 홍보/후원금 접수가 오는 주일인 5/28일부로 마감됩니다. 공동체에서 특별히 청년회의 활성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 마련해 주신 뜻깊은 행사인 만큼 우리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홍보와 후원금 접수에 참여해 주신 하모니/트락 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접수 주일에도 청년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시간: 오전 9:00 ~ 9:30, 10:30-11:00 그리고 교중 미사 이후

마지막 **주일 (5.28) 친교실에서의 홍보와 후원금 접수에 봉사하실 분들은 회장단께 연락 주세요.**

주보 나눔 봉사자 (5/28 주일)

류은정 골롬바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보 나눔 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미사 (5/28 주일)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세번째 영어 미사가 오는 주일 4시에 있습니다. 미사 참여 시 영어 이름표를 부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름표 앞은 한글로, 뒤는 영어미사를 위해 영어로 표기 할 예정이며,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세례명 영문 스펠링을 안해준 야고보 형제님께 (또는 공지 이메일 답신으로) 오는, **5/24 (수) 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미사 (6/4 주일)

우리 공동체 야외미사가 6/4일에 있습니다. 당일 하모니/트락회 기금마련 걷기 행사가 오전 9:30 ~ 10:30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 2017년 6월 4일(일), 오전 11시

장소: Joaquin Miller Park, 3450 Joaquin Miller Road Oakland, CA, 94611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을 함께할 님들을 모집합니다.

청년 신청자가 많으면 청년 모임을 별도로 만들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5/2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 부활시기(4/16-6/4)동안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다'양식으로 합니다.

'다'양식: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부활시기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시기로 예수 부활 대축일(4/16) 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6/4)까지 50일간 계속됩니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